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미친 영향

-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백서」를 위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주요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담당 김종수 주교, 소장 박용승 신부)는 코로나19 시기에 한국 천주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 과제와 비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은 올해 11월 발간 예정인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백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본 조사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한 신앙생활 변화 추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을 물어보았고, 비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삶의 변화와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바람 등을 조사하여 향후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구 분	내용
①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전국 천주교 신자 / 일반 국민
② 조사방법	웹 패널 기반 온라인 조사
③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비율 기반 비례할당법(Quota Sampling)
④ 유효표본	천주교 신자 1,063명 / 일반 국민 1,000명
⑤ 표본오차	천주교 신자: 95% 신뢰 수준에서 $\pm 3.01\%p$ 일반 국민: 95% 신뢰 수준에서 $\pm 3.10\%p$
⑥ 조사기간	2023년 1월 10일(화) ~ 1월 16일(일)
⑦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코로나19 시기의 삶과 신앙생활]

1

코로나19 시기, 가장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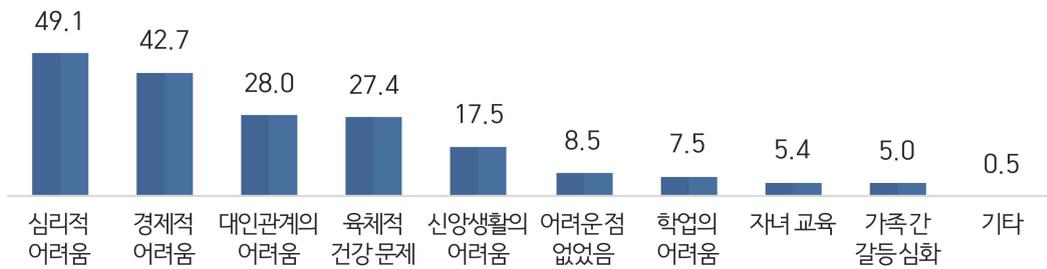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시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천주교 신자들과 일반 국민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 건강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신앙생활(종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8.8%, 천주교 4.5%, 불교 0.5%의 순서로 나타났다(1순위 결과).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개신교는 5위(24.5%)로 나타나고, 불교의 경우에는 12위로 나타났다(4.2%).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어려움이 1위로 오르고 신

양생활의 어려움은 5번째로 17.5%를 나타냈다. 신앙생활에 중대한 장애 요소가 발생했음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신앙생활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거나 코로나 기간에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코로나19 시기 개인적 어려움(종합순위) - 천주교 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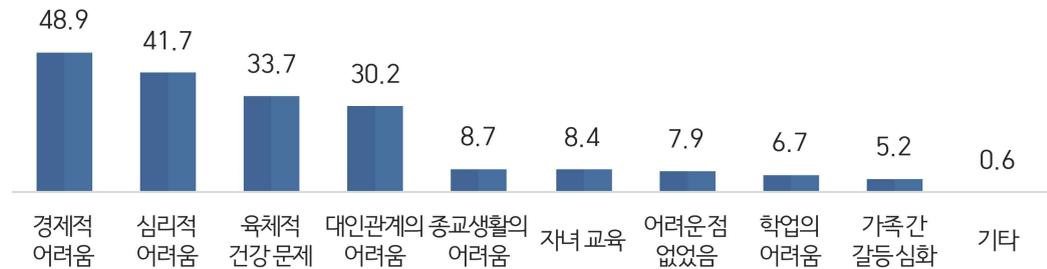
(단위 : %)



Base = 전체

▼ 코로나19 시기 개인적 어려움(종합순위) - 일반 국민(비천주교 신자)

(단위 : %)



Base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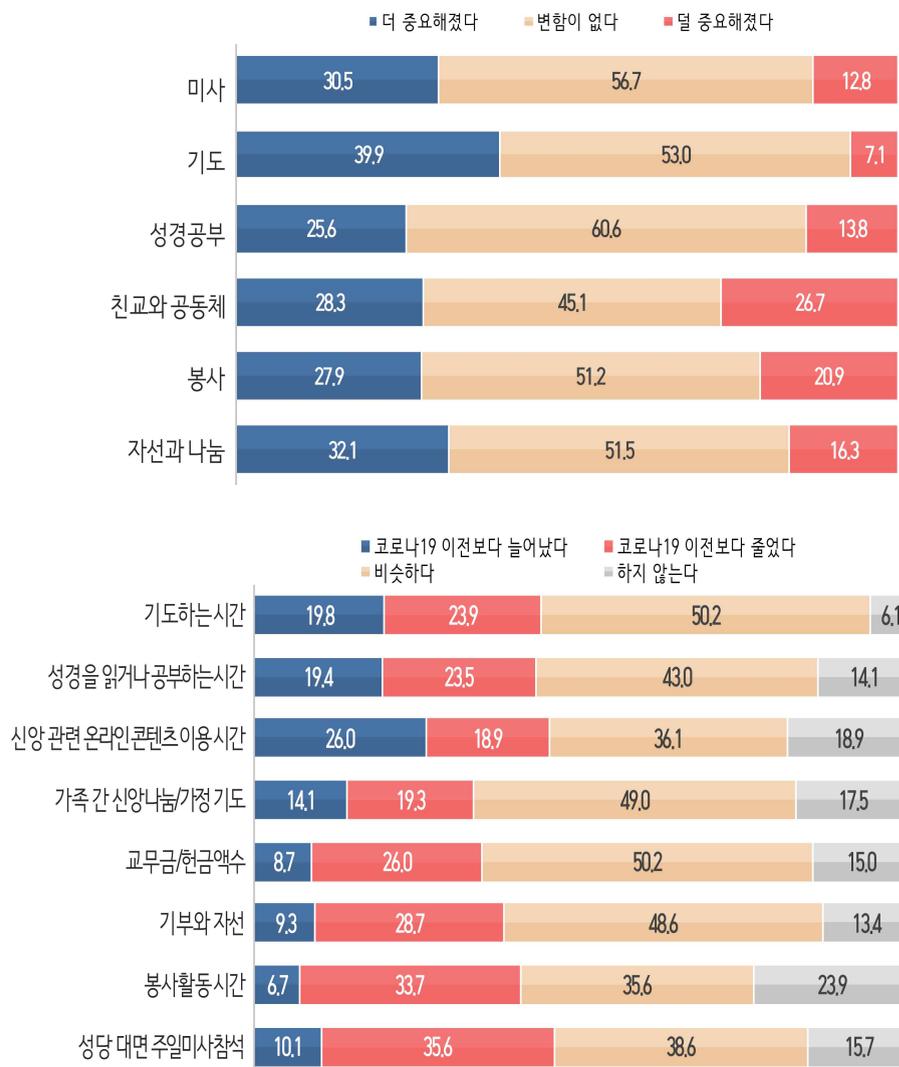
2 신자들의 신앙 의식과 신앙생활 실천 사이의 차이 심화 친교와 공동체, 봉사, 자선과 나눔에서 인식과 실천이 크게 감소

- 이번 조사에서는 비교적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과 열심 정도가 높은 신자들이 주로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신자들의 신앙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다.
-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자들의 신앙 의식과 신앙 실천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곧 미사와 기도, 성경 공부, 친교와 공동체, 봉사, 자선과 나눔 등에 대한 인식

에서 신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그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실제 이런 신앙 의식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 관련 인식 변화에 대한 문항에서 미사/기도/성경 공부 등의 내적인 측면에 비해 실천 측면, 곧 친교 공동체/봉사/자선과 나눔 등에서는 덜 중요해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것은 실제 신앙생활 실천과 관련한 문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기부와 자선/교무금과 헌금/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것에 비해 더욱 크게 축소되어 있다. 과거에도 의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늘 언급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실천상의 여러 어려움이 이를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한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염 우려로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줄이면서 신자 간 접촉 빈도와 관계 밀도가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곧 관계 영역(친교와 공동체, 봉사, 자선과 나눔)에서 인식과 실천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주로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내는 정도와 관계가 있는데 팬데믹을 거치며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만남의 중요성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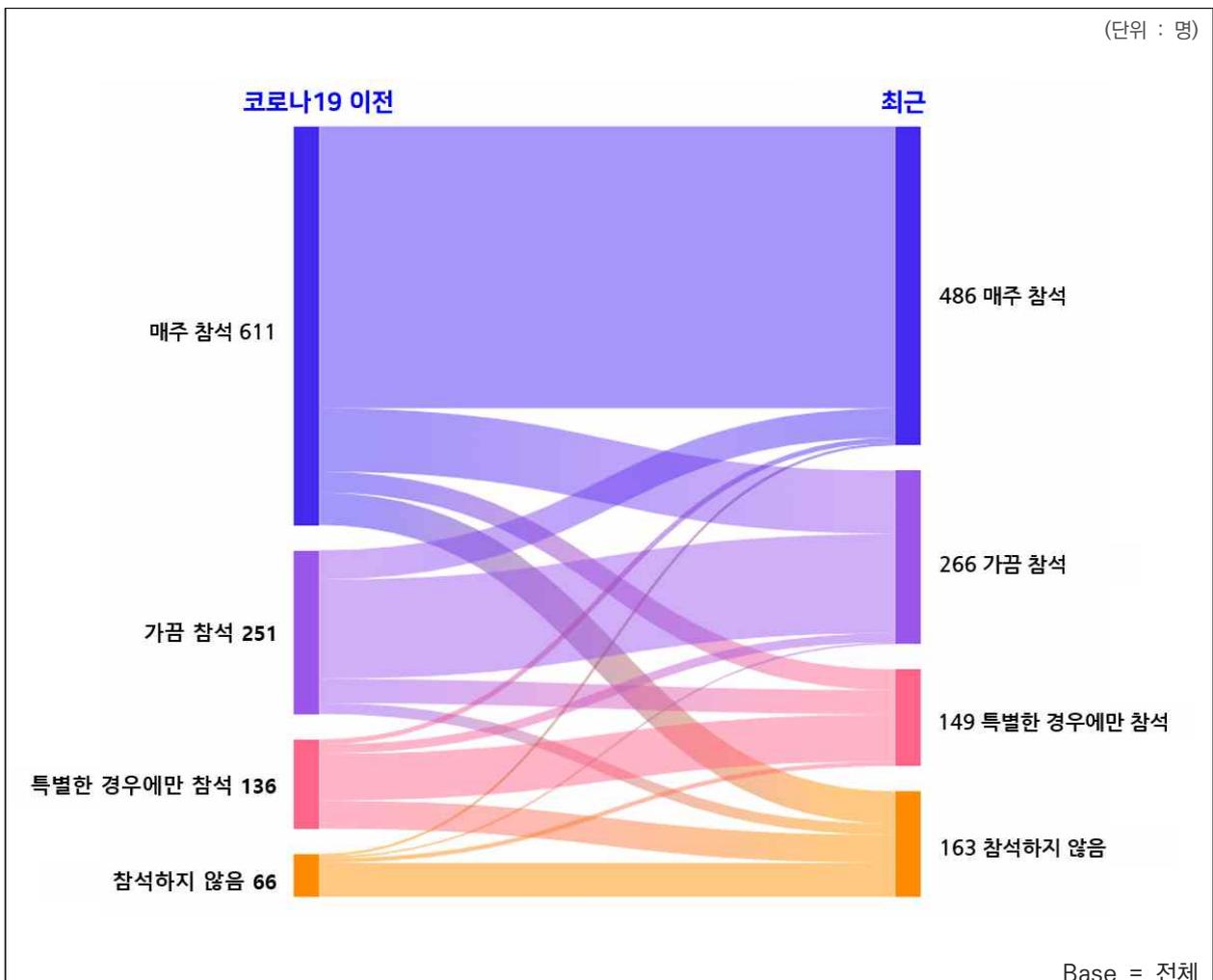
Base = 전체

▲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

[코로나19를 전후한 미사 참석 변화 동향]

3 **코로나19 이전 매주 주일 미사 참석자의 70.5%만 매주 참석**
 본당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온라인/방송 미사 참석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미사에 더 많이 참석

- 코로나 이전에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70.5%만이 현재 주일 미사에 매주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13.6%는 현재 특별한 경우에만 미사 참석하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
- 코로나19 이전 주일 미사 매주 참석자 대비 현재 주일 미사 매주 참석자는 7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 이전에는 가끔 참석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참석, 또는 참석하지 않던 신자들이 매주 참석하게 된 경우가 11.3%를 차지했다.
- 반면에, 코로나 이전에 특별한 경우에만 주일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매주 참석(5.5%)하거나 한 달에 몇 번 참석(11.0%)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또 적은 숫자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미사 참석을 하지 않았던 신자들 가운데 6.5%와 4.8%는 현재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하거나 매월 몇 차례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일 미사 참석 변화(Sankey Diagram)

•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가 현재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은 주로 누구인가?**

코로나19를 거치며 현재 미사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의 70%는 여성이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미사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전체의 68.8%는 50대 이상이고(20대 4.4%, 30대 7.0%, 40대 19.8%, 50대 32.8%, 60대 이상 36.0%), 지역별로는 응답자 비율에 비해서 경북과 서울 등에서 많고, 신앙생활 기간이 31년 이상된 신자들이 37.1%를 차지하고, 고소득 가구에서 더 불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기간의 한국 교회 활동에 대해 현재 미사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현재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도 한국 교회 전체의 방역 노력,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돌봄과 위로, 봉사 활동, 백신 나눔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속 본당과 관련된 상황과 관련해서, 곧 본당의 연락과 관심, 본당의 온라인 사목, 본당의 어려운 이웃 돌봄과 위로, 소속 본당 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 **현재 미사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신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시급히 변화해야 하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미사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신자들은 ‘일부 신자 위주의 본당 운영’과 ‘권위주의 문화’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대다수 신자들의 답변과 동일한 것으로 현재 미사에 불참하는 신자들의 답변은 그 순서는 동일하지만 더 강하게 의견을 나타냈다.

•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신자들의 미사 참석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다른 문항과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미사 참석의 증가와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본당에 대한 소속감’과 ‘온라인/방송 미사 참여 경험’임이 드러났다. 곧 본당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온라인/방송 미사 참여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주일 미사 참석이 증가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사목자를 비롯해서 신자들 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심으로 인한 본당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온라인/방송 미사 참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 **현재 미사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합 순위에서 ‘주일 미사 불참에 익숙해져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58%)을 나타냈으며, ‘고해성사를 하지 못해서/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려워서/미사 참석이 더 이상 신앙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어서’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30%대).

• **현재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이 향후 미사 참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당장 다음 주에 바로 참석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언제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참석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15.3%는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방송 미사/온라인 콘텐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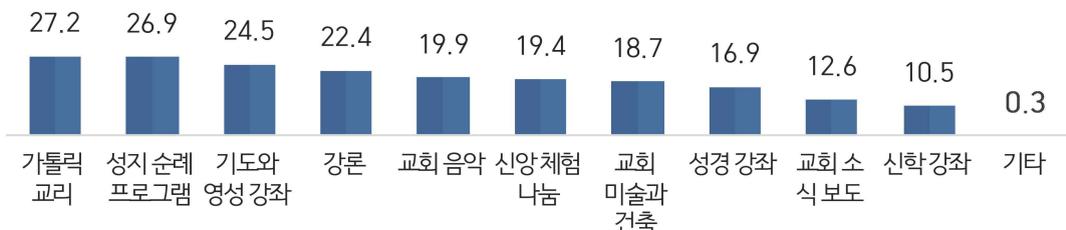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 방송/온라인 미사에 만족도 61.7%

50%가 매주 또는 한 달에 두세 번 방송/온라인 미사 참여

-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신앙생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가톨릭평화방송 미사’에 많이 참여했으며, 방송/온라인 미사 참여 횟수는 ‘한 달에 두세 번’(31.9%) 또는 공동체 미사 중단 기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18.0%)는 응답도 많았다. 방송/온라인 미사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61.7%)는 응답이 ‘불만족한다’(6.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 만족하는 이유로는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는 응답(51.6%)과 성당에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22.9%)는 현실적인 의견이 많았다. 방송 온라인 미사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실제 미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영성체를 하지 못해서 온전한 미사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방송/온라인 미사에 참여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긍정하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46%에 달했다.
- 코로나 이후 어떤 경우에 방송/온라인에 참석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득이한 경우(아파서 성당에 가기 어려운 경우, 성당의 미사가 중단될 경우에만)에만 참석한다는 응답은 38.7%,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상황에 따라 온라인 미사와 오프라인 미사를 병행할 것이다, 시간이 없을 때, 본당 미사에 참여하기 싫을 때)에도 참석하겠다는 응답은 53.6%로 나타났다. ‘항상 방송/온라인으로만 할 것’이라는 응답은 0.8%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 방송/온라인 미사 관련 경험에서 실제 미사에서 얻는 하느님 현존과 은총, 거룩함, 공동체의 체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체험이 코로나19 이후 실제 미사에 참석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밝혀졌다.
- 신자들은 온라인 신앙 콘텐츠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에서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천주교 콘텐츠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27.2%), ‘성지 순례 프로그램’(26.9%), ‘기도와 영성 강좌’(2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온라인에서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천주교 콘텐츠(종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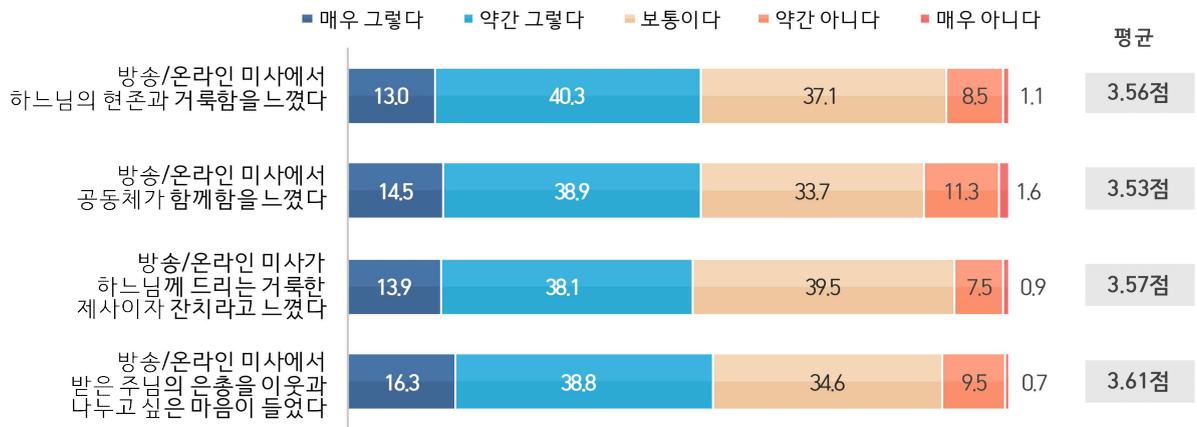
(단위 : %)



Base = 전체

▼ 방송/온라인 미사 관련 경험

(단위 : %, 점)



Base = 방송/온라인 미사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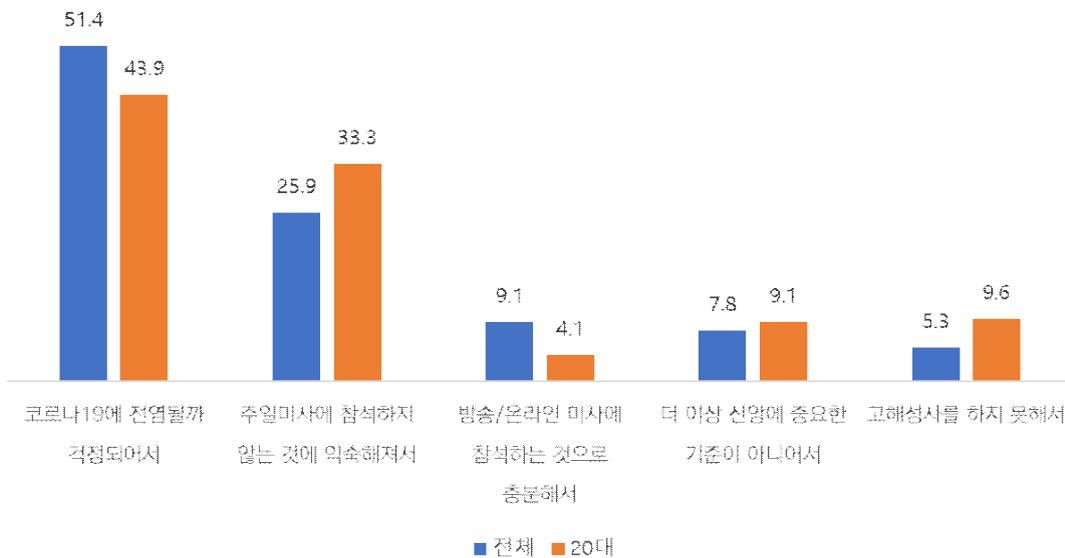
5 20대 주일 미사 참여율 53.2%→36.1% 하락
청년들은 탈권위적이고 환대하는 교회를 희망

• 이번 조사에서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도 좀 더 열심한 신자들이 많이 표집되었지만 이들의 신앙생활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 20대의 주일 미사 참여율은 53.2%였다가 현재는 36.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대의 25.4%는 특별한 경우에만 참석하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다. 성당 대면 미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코로나 감염 위험(43.9%)을 가장 많이 꼽고, 이어서 주일 미사 불참에 익숙해져서(33.3%)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주일 미사가 신앙에 더 이상 중요 기준이 아니라는 응답(9.1%)도 높았다.

▼ 성당 대면 미사 횟수가 줄어든 이유

(단위 : %)



Base = 성당 대면 주일미사 횟수가 감소한 응답자

•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대는 천주교 신자로서 긍지나 자부심, 본당에 대한 소속감, 친교 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다. 코로나 이후에 본당의 단체 활동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의견도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본당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가장 많았지만(39.4%), 성가대(16.4%), 청년회(14.3%), 전례 봉사(5.8%)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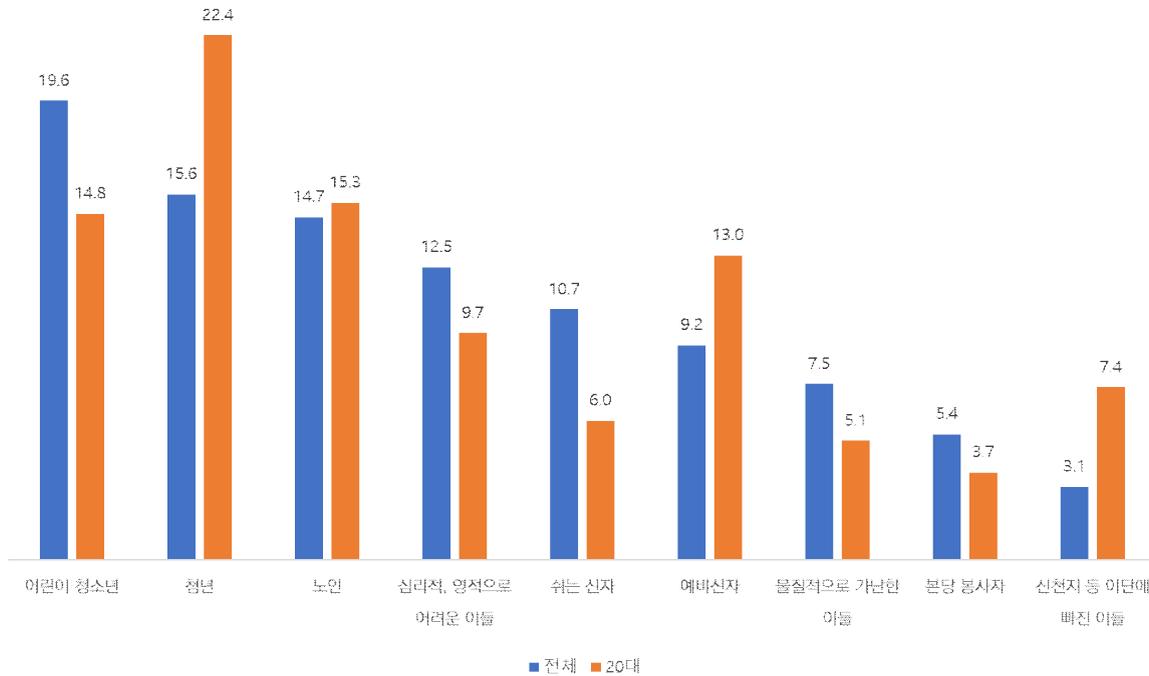
• 코로나 기간에 실시한 온라인 방송 미사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로 실제 미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온라인 문화에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20대가 보기엔 현재의 온라인 미사에 대한 몰입감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온

라인 콘텐츠에 대해 20대는 교회 음악, 교회 미술과 건축 등을 더 교회가 개발해 주길 희망했다.

- 청년들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변해야 하는 문화(1순위)에 대해 권위주의 문화, 사제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 현대 부족 등의 순서로 꼽았다. 청년들은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우선적 사목 대상에 ‘청년’을 먼저 뽑았다.
- 한편으로 이번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천주교 이미지를 ‘부유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난하고,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의 청년 사목 방향에 중요한 성찰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 코로나19 이후 우선 사목 대상

(단위 : %)



Base = 전체

[코로나19 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호감도]

6

코로나19 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41.9%로 나타나 ‘미흡했다’(33.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대응 전반적 만족도-일반 국민 대상

(단위 : %)



Base = 전체

- 코로나19 발생 이후 천주교회에 대한 호감도 변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는 응답이 31.7%(매우 좋아졌다 3.8%+약간 좋아졌다 27.9%)로 나타나 ‘나빠졌다’(22.5%=매우 나빠졌다 6.7%+약간 나빠졌다 15.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긍정적 평가로 보일 수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나서 호감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코로나19 이전 대비 천주교회 호감도-일반 국민 대상

(단위 : %)



Base = 전체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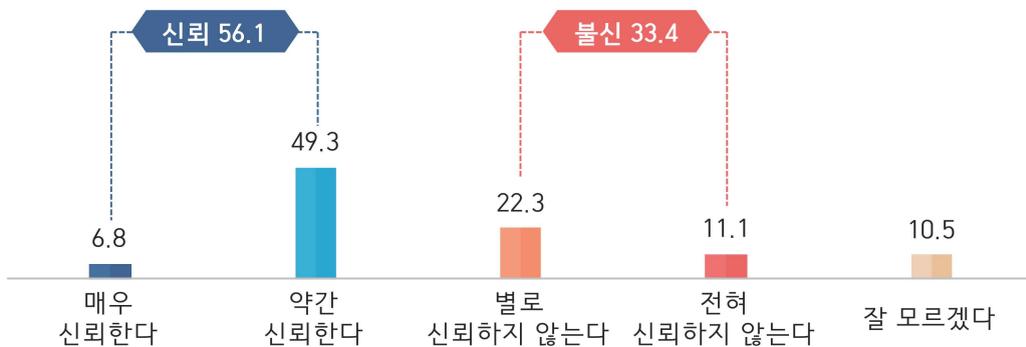
일반 국민들의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이미지

따뜻하고 희생적이며 진정성 있으나, 보수적이고 부유하며 폐쇄적임

- 한국 천주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 응답이 56.1%(매우 신뢰한다 6.8%+약간 신뢰한다 49.3%)로 나타나 ‘불신’(33.4%=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1.1%+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2.3%)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국 천주교회 신뢰도-일반 국민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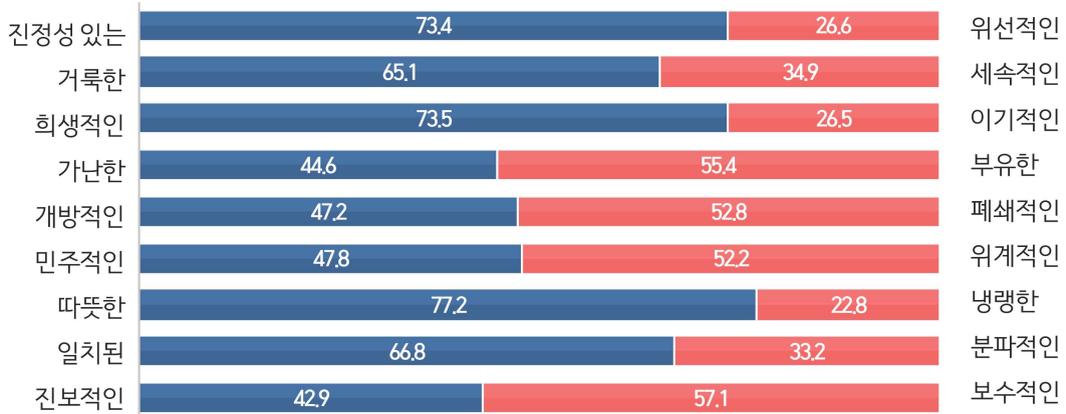


Base = 전체

- 일반인들의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위선적이기보다는 ‘진정성이 있으며’, 세속적이기보다는 ‘거룩하고’, 이기적이기보다는 ‘희생적이며’, 냉랭하기보다는 ‘따뜻하고’, 분파적이기보다는 ‘일치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고,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이며, 민주적이기보다는 ‘위계적’이며,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조사한 결과 ‘주변 사람’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론 매체 보도’(42.4%), ‘자신의 경험’(2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렇지만,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이것은 과거 한국 천주교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적 측면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

▼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이미지 - 일반 국민 대상(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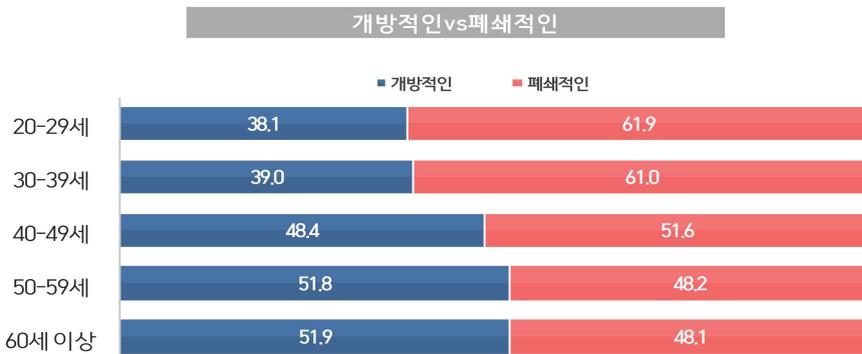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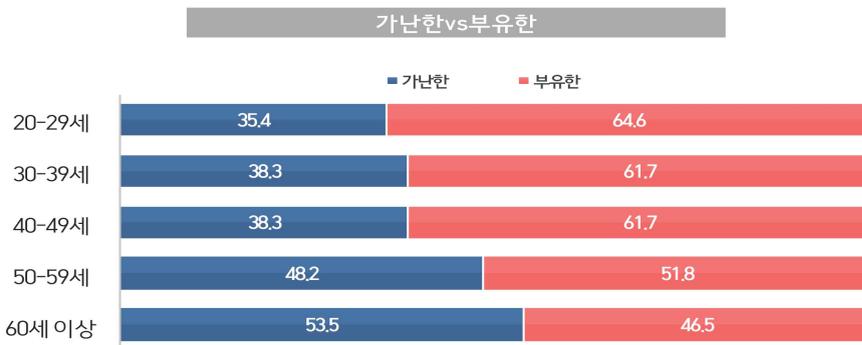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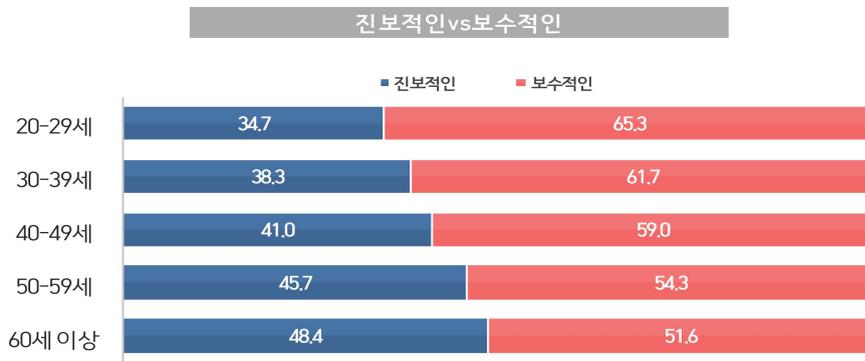


Base = 전체

▼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이미지 - 일반 국민 대상(연령별)

(단위 : %)





Base = 전체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바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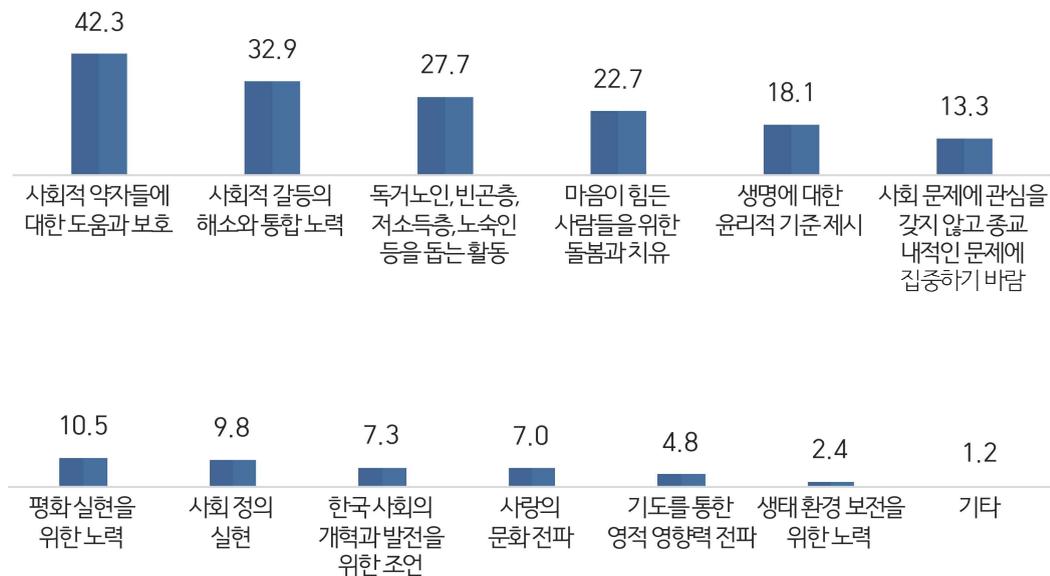
일반 국민의 한국 천주교에 대한 기대

사회 통합, 약자들에 대한 도움과 보호, 공공성의 강화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적 역할로 가장 크게 이야기 된 것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 통합 노력’이었다(1순위).
-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과 보호, 독거 노인 등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 등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종합순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개신교와 불교 신자들,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대는 높아졌다. 직업적으로는 자영업자들과 전업 주부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계층에서 이런 희망을 더 많이 드러냈다.

▼ 한국 천주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종합순위) - 일반 국민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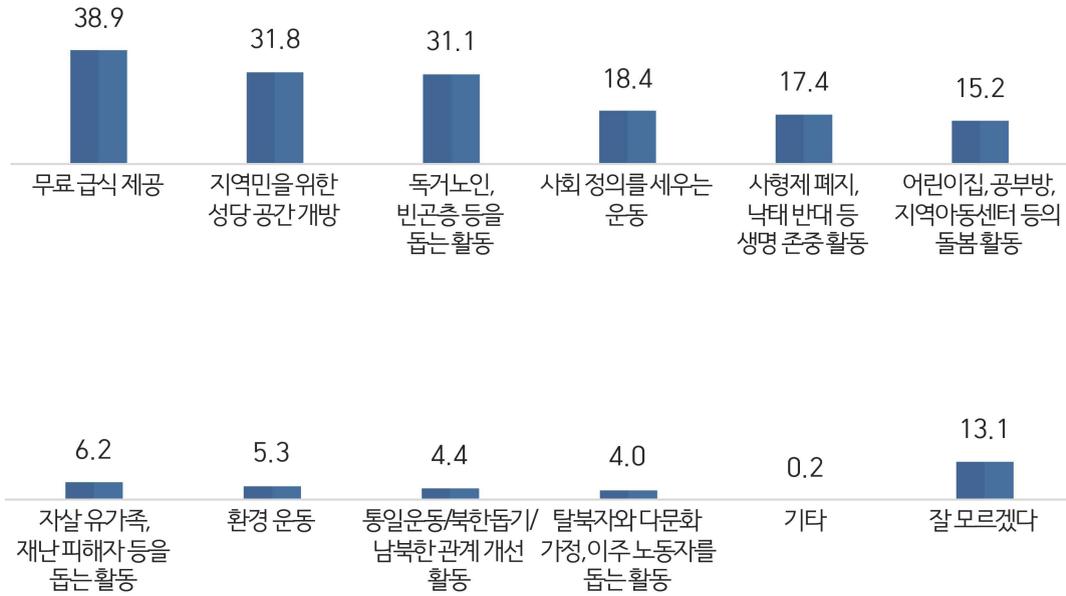


Base = 전체

- 일반 국민들에게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가장 잘하는 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무료 급식 제공’을 가장 잘한다고 평가했고(38.9%), 이어 ‘지역민을 위한 성당 공간 개방’(31.8%), ‘독거노인, 빈곤층 등을 돕는 활동’(31.1%) 순으로 평가하였다(종합순위). 1순위만 집계한 결과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성당 공간 개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한국 천주교회가 좀 더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천주교회가 가장 잘 하고 있는 활동(종합순위) - 일반 국민 대상

(단위 : %)



Base = 전체

• 신자들 역시 지역 사회에 열린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 교회 공간 개방, 지역 사회를 위한 열린 카페나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해 70%가 넘는 신자들이 동의를 표했다. 그렇지만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교회 쇄신과 복음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서 사회적 노력은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아래서 더욱 시급해진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종교 일반에 가져온 위험도 있었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사회적인 이기적 처신은 종교의 사회적 존재 의의와 그 역할까지 문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더욱 전향적으로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한편으로 교회가 현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